



제 3장

모세

B.C. 1706년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열 두 아들 및 그 모든 자손과 종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땅의 모래같이 번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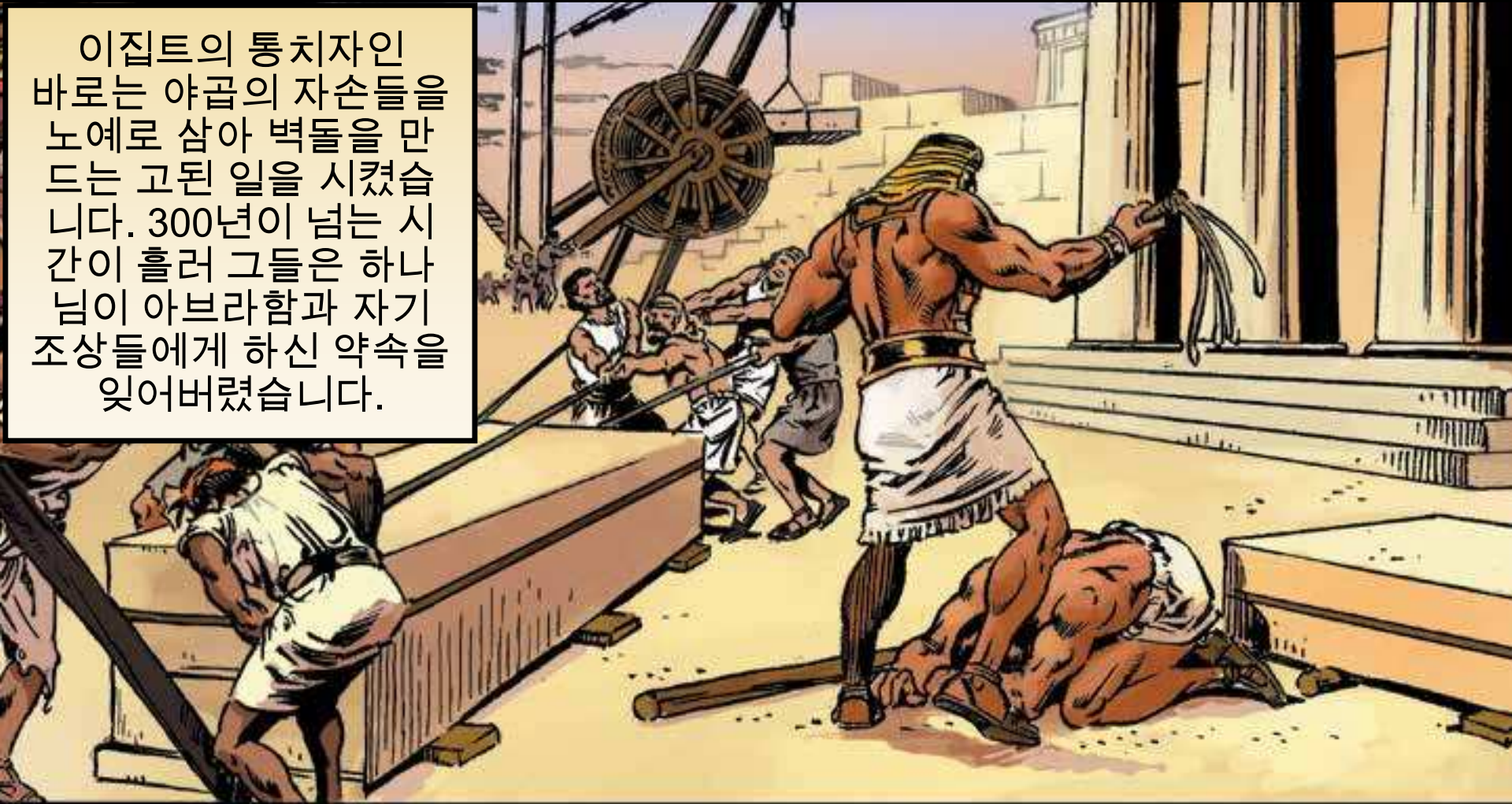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곧 이집트 사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이국 땅에 내려가 노예로 살게 될 거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그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구요.

이집트의 통치자인  
바로는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아 벽돌을 만  
드는 고된 일을 시켰습  
니다. 300년이 넘는 시  
간이 흘러 그들은 하나  
님이 아브라함과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바로가 우리 수  
가 많아지는 것  
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그  
래서 우리 아기  
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약하고  
게을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고된  
일을 해서  
강하다구요.  
그들은 우리를  
무서워해요.


내 아기는  
절대로 죽이지  
못할 거예요. 하  
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흥! 하나님  
바로의 힘 앞  
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안돼요!  
우리 아기는  
안돼요! 하지  
말아요!

바로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남자아기  
가 태어나면 다 죽이  
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군사들과 이웃사람들이  
아기가 어디 있냐고 하면  
뭐라고 하죠?

그냥 사실대로  
말하거라. 군사들  
이 아기를 강에 던  
지기 전에 그 엄마  
가 직접 던졌다고.



어머니,  
바구니에 물  
이 새지는 않  
을까요?

타르를  
입혔단다. 물  
위에 뜰 거야.

우리 아기  
동생을 다시 보게  
될까요? 나쁜 이집  
트 사람들!

하나님이  
아기를 보호하실  
거야. 근처에서  
잘 지켜보아라.



그 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강으로 왔습니다.




저길 좀 보아라!  
바구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 같습  
니다.

아, 귀여운  
아기네요.


틀림없이  
배가 고플  
거야.






젓을 먹여  
줄 사람을 찾  
을 수만 있다  
면 내가 키울  
텐데.

저기 히브리  
아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젓을 먹일  
사람을 알지도 모  
르겠는데요.



제가 가서 젓먹일  
사람을 찾아 볼게요.  
아기를 강에서 잃어  
버린 히브리 아줌마  
를 알아요. 아직 젓  
을 먹일 수 있어요.


약 B.C. 1525년경 - 출애굽기 2:3~9



다른 길이 없었  
잖아요. 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  
으니까. 결국엔  
이집트 군사들이  
찾아내 죽일텐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과연  
내 아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돌보  
실까?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바로의 딸이  
강에 와서 아기 동생을 발견  
했어요! 아기를 직접 키우겠  
대요. 젖을 먹일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고요!


영원하신 하  
나님을 찬양  
합니다!



아기를  
잃었다고 들었다.  
정말 안됐구나. 이  
아기를 강에서 건  
졌는데 젖을 먹여  
길러주면 돈을  
주마.

젖을 떼  
후에 내가 와서  
궁으로 데려가 이집  
트의 바로가 되게 키우겠  
다. 이름은 모세라고  
짓자.

모세가 자라는 동안 어머니는  
모세에게 조상의 참 하나님에 대해 가  
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에  
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지요.



올라타십시오,  
어린 왕  
자님. 궁까  
지 모시겠습  
니다.

얼만큼 빨  
리 달릴 수  
있어요?

모세를 먹여  
길러줘서 고맙구나.  
아이가 아주 건강해 보인  
다. 자라서 부유하고 힘  
있는 자가 될 거야.





바로왕의 딸의 입양아로 자란 모세는 이집트의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유하고 힘 있는 자가 되게 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지요.




그래,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 이국 땅  
에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하셨  
지. 우리가 지금까  
지 359년을 있었으  
니까 이제 41년밖에  
남지 않았어!

이 봐,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자손이 번  
성하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 거  
라고 하셨어. 자, 봐,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



믿기지 않는데. 바로는  
절대 노예들이 다 떠나게 하지 않을  
거고, 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게 할  
리는 없어. 하지만 무슨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왜 41년을 더 기다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국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  
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으로 돌아갈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




히브리 자손은 주인 밑에서 아주  
고생했습니다. 진흙탕에서 벽돌을 만들어야  
했지요. 모세는 그들의 고생을 차마 보기 힘  
들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맞아 죽기  
전에 어서  
일어나!

이 더러운  
자식, 일  
어나!

에버, 일  
어나!



하루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백성 하나를 심하게 때리는 광경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왔어. 이런 일은 끝  
나야 해.



그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묻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광경을 보고 바로에게 고했습니다.



멈춰라!  
살인을 했으니  
심판을 받아야  
해!

오 하나님!  
제가 무슨 짓  
을 한 겁니  
까?

모세다!

B.C. 1491년경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였지요.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약 B.C. 1491년경 - 출애굽기 2:11~15



모세는 몇 날 몇 일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걸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양치기들을 만나게 되었구요.

저기 봐!  
남자야!

곧 죽을  
것 같아 보이잖  
아! 어서 물을  
가져와!

이집트 사  
람이야!



모세는 미디안 사람 사이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법도 배우고 결혼도 하고 양치기가 되었지요. 40년이 흘러 이 집트는 옛기억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다시 볼 희망을 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하군! 저 덩불에  
어떻게 불이 붙었으며 왜  
나무가 타들어 가지 않는  
거지? 계속 타기만  
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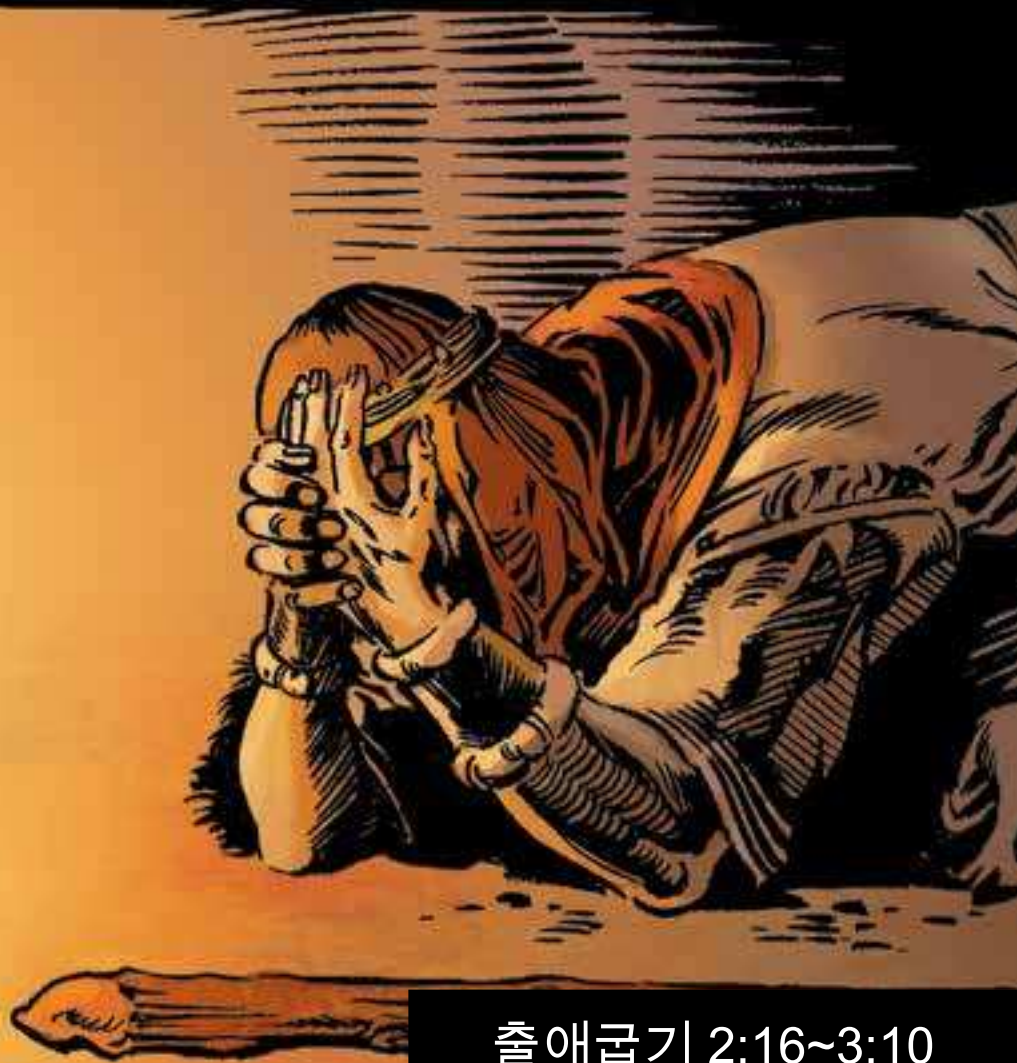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  
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에서의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다. 이제 그  
들을 압박에서 건져내어 내  
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데려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를 바로  
에게 보내겠고,


네가 내 백성을 압박  
중에서 꺼낼 것이다. 네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  
할 것이나 그는 듣지 않을 것이야.  
그 때 내가 내 힘을 이집트에 보이  
겠고, 그 후에야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2:16~3:10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저를 비웃기만 할  
겁니다.



A man with a beard and long hair, wearing a brown fur-lined cloak and a head covering, stands on a rocky outcrop. He holds a long wooden staff horizontally in front of him with both hands. The background is a gradient of light blue and grey. A yellow speech bubble with a black border is positioned in the lower-left area of the image.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 보  
아라.

이런? 내  
지팡이가..






내 지팡이가  
독사로  
변했잖아!



뱀의 꼬리를  
잡아라.



A close-up illustration of a hand gripping a sword hilt. The hand is rendered in a detailed, shaded style with visible musculature and a textured, possibly metallic or leather, grip. The sword hilt is a simple, cylindrical shape. The background is a solid, muted brownish-orange color. A speech bubble is positioned above the hand, containing Korean text.

다시 내 지  
팡이로 변  
했네!

이집트로  
가라. 네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할지 내가 가르치  
겠다. 너의 형 아론  
이 너를 도울  
것이다.



출애굽기 4:1~4, 12~16

B.C. 1445년

이미 40년  
전의 일이에요. 내  
과거를 알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거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을 놓아 줄 때  
까지요.

이집트로 다시 돌아 간다고요?  
당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구요?

얼마동안  
가 있을 건  
가요?






장로들을 다  
소집하시오! 구원의  
때가 왔소!

저 사람들  
은 누구지?

저 사람은 레위 사람  
아론이고, 다른 사람은 우리  
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노예  
는 아니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가까이 오십  
시오.

모세는 80년전  
바로가 모든 남자아  
기들을 죽일 때 태어났습  
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  
세를 바구니에 넣어 강물  
에 숨겼고, 하나님의 섭리  
로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  
견해 그를 이집트 사람으  
로 키웠습니다.




40년전, 모세는 이집트 인으로서  
이집트를 다스리느니 자기 백성과 함께  
고생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  
하신 땅의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바로에  
게서 구원할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우  
리를 보내게끔 설득시킬 표적을 모세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여  
기 그 표적을 보여드리지요.






헉, 모세의  
지팡이가 뱀  
으로 변했다!

두려워하  
지 마십  
시오.



자, 보십  
시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  
내주셨다.

그래, 그걸  
바로에게 보  
여주면 돼.


이건 기적  
이야!

이제 바로  
에게 갑시  
다!

아브라함  
의 하나  
님!


40년 전  
이곳을 떠났을 때  
그대로군. 꼭 제  
가 한 말 그대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어 삼일 동안 광야  
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으하하, 난 당신들의 하나님을  
모른다. 이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복종해? 기가 막히는군.  
내 노예들이 삼일 동안 광야에  
간다는 건 허용 못한다.



네가 어떻게 내 백성을 동요시켜 일을 그만하게 했는지 다 들었다. 뭐? 이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삼일 동안 광야에 간다고? 내가 필히 일 거리를 더 많이 주도록 하마.

지금부터 저 백성은  
벽돌 만들 짚을 스스로 구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눈 앞  
에서 당장 사라져 너희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저런 뻔뻔  
스런 녀석  
들을 보았  
는가?

웃긴 놈들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  
의 목소리인 양 걸어들  
어오다니.



기껏 했다는 것이 우리 일을 두 배로  
늘렸다 이거군. 이것도 구원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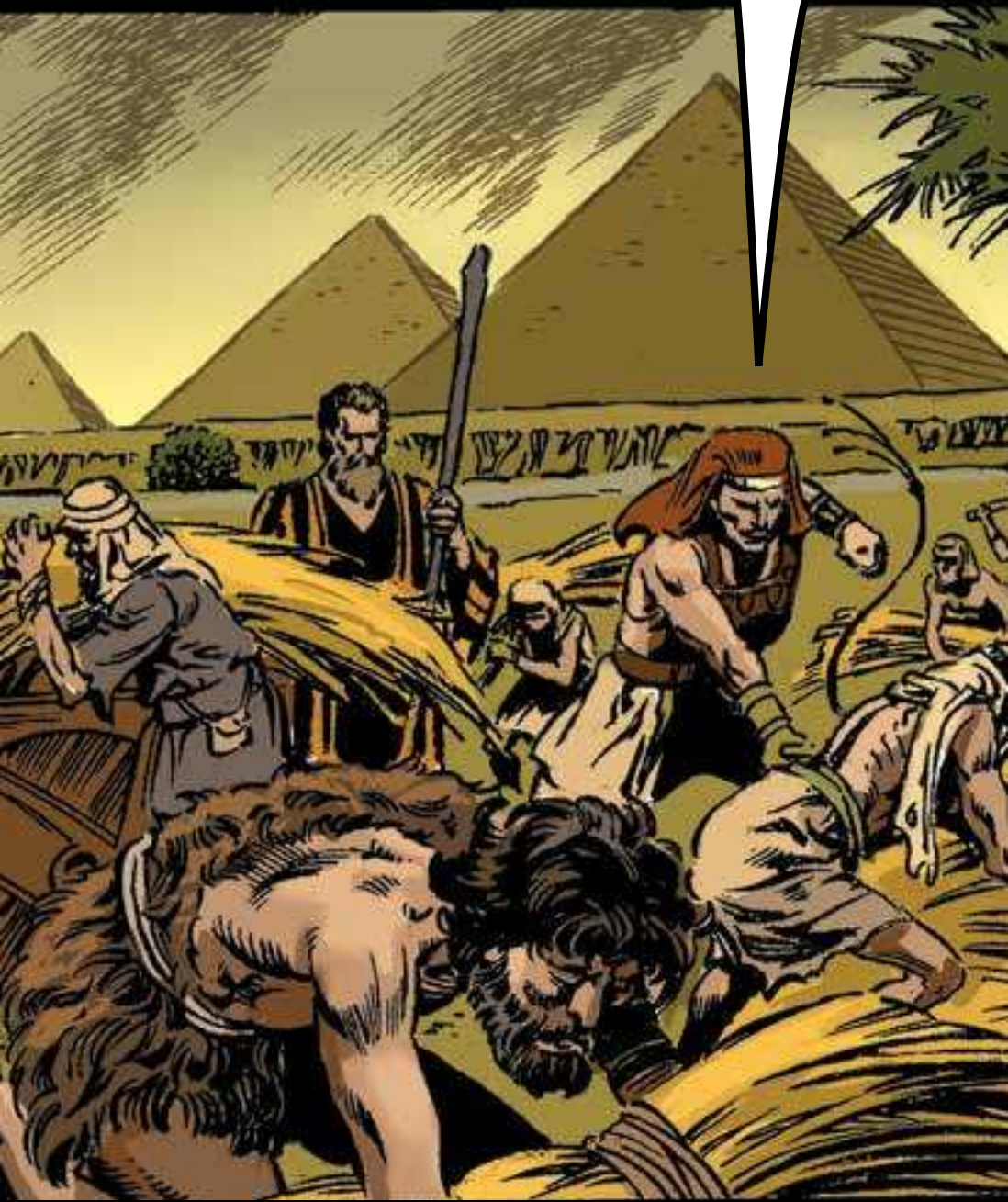
도대체 자  
기가 뭐라  
고 저러지?


저 속임수에  
우리가 빠졌다  
니 믿기지 않  
는군.

저 미치  
광이!



너희가 할 일이 충분치 않은  
게야. 가서 너희 하나님을 경  
배하고 싶다고? 게으름 못 피  
우게 우리가 가르쳐주지.






여호와여,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러  
온 후로 오히려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  
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그 통곡  
소리를 들었다. 이제 아브라함  
에게 했던 내

약속을 지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가 되었다. 모세,  
네가 그들을 인도  
할 것이야.



전 말을 잘 못합니다. 바로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론이 말을 전할 것이다. 넌 내 말을 듣고, 아론에게 할 말을 일러주기만 하면 된다. 바로가 처음에는 네 말을 듣지 않겠지만,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이집트 인이 알 때까지 더 큰 표적들을 보여주겠다.



하하, 다시  
와서 무얼 하겠  
다는 건가?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보  
내라고 말씀하  
십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표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으하하,  
마술에 불과  
할 뿐일데, 그  
걸로 무서워  
하지 않아. 우  
리 마술사를  
불러라!

정말 매끄  
럽게 잘 했  
어. 진짜 같  
지않았나?

어디서 저런  
것을 배웠지?




빨리 와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  
하게하는 마술을 보  
여주십시오.



우리의 뱀신  
네세르트가 우리를 보내  
너희에게 벽돌을 더 많이  
만들으라 하신다. 으하하!









모세, 이제  
어떻게 하지? 우  
리가 바보처럼  
보일텐데.

출애굽기 7:11~12



저것 봐!  
저 자들 뱀이 우리 뱀들과 싸우려고 해!



저 뱀이  
우리 뱀 하나  
를 잡아 먹잖  
아!

뱀 한 마리를  
완전히 다 삼켜버  
렸어!





또 한 마리를  
먹으려 하는 것 아냐?  
우리 뱀신 네세르트가  
화내실 거다.



믿기지  
않는군! 저  
뱀이 우리 뱀  
들을 모조리  
다 잡아먹다  
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백성을 보  
내라”고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한 지는 모르겠지만, 네 쇼의 대가로 수백만의 노예를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눈 앞에서 사라져!



출애굽기 7: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의 말을 듣  
지 아니하니 여  
호와 말씀과  
같더라.”





왜 여호와와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셨을  
까? 한동안은 우리가 바보  
처럼 보였잖아.

나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되었구요.  
내 지팡이가 그의 애완 뱀들을 잡아먹  
었을 때 바로가 엄청나게  
화난 것 보았지요?

난 여호와와  
얘기할 곳을 찾아  
야겠어요. 다음엔  
뭘 해야 할지 모르  
겠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와 다시 만나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모세를 조롱했습니다. 모세 자신의 백성은 바로가 더 잔인하게 압박한다 해서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리기  
위해 이집트의 물이 모두 피가  
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아, 저건  
좀 대단한데?  
어떻게 저렇게  
했지?

마술사들을  
불러라. 나일의  
신께서 이것을  
멈추실 것이다.



보아라,  
내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 난 네 마  
술에 속아넘어가  
지 않아.



난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봐. 샘들과 작은 연못들까  
지도 다 피로 변했어. 그의 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지?


못 들었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신이  
수없이 많잖아. 나일강의  
신이 화나셨겠다.



신이 하나라고?  
웃기는 소리군.

저 모세라는 작자가  
그러는데, 자기  
하나님만이 유일  
한 신이라.

물이 피가 된지 칠일 만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이집트에 불러왔습니다.




물에서  
개구리 떼가 가  
득 올라올찌라.

냄새나는 핏물에서 갑자기 개구리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출애굽기 7:21~25, 8:6






우리집이  
개구리로  
가득 찼어!

이집트  
전체가 개구리로  
가득해. 신들이  
노했어!

우리 신의  
사제들은 어디 있  
지? 그들이 어떻  
게 못할까?



**까악!**




바로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저희 마술로도  
개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개구리를  
더 많이 만드는 거지? 그 자 모  
세가 벌써 충분히 우리를 괴롭  
히지 않았나? 이제 바로왕이 우  
리를 더 괴롭히는 군.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로 보내지 않으시  
겠습니까? 더 이상 견딜 수  
가 없습니다.

모세를 불러라.  
내가 할 얘기가 있  
다고 해라.

그렇게 하겠  
습니다.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 달라고 여호와께 부탁해라. 그렇게 된다면 네 백성이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개구리가 죽기 원하시는 시간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다!


왕의 말씀대로 되어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음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우리 땅을 개구리로 뒤덮이게 하시나?

바로는 자신이 말한 시간에 개구리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또 마음이 완고해져 히브리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냥 자연 현상일 지도 모르지.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예언할 수 있었지? 또 어떻게  
개구리들이 다 죽을 정확한  
시간을 알았지?

야, 입닥치고  
삽질이나 해.  
안 그러면 평생  
못 끝내겠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손을 들어 땅의 먼지를 쳐서  
온 이집트에 이가 되게 하라고 말해라.”





그러자 온 이집트의 먼  
지가 이로 변했습니다.





이를 못 만든다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백성들이 모세의 하나님을  
우리 신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할 줄 아는  
게 속임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폐하,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도 저 두 사  
람이 한 것같이 할 수가 없습  
니다. 저희는 무력합니다.

틀림없이 자연적인 설명이  
있을 거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모세에게 전해라. 그의 하나  
님이 이를 없애 주시면 히브리 사람들  
을 보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이가 없어졌어,  
하지만 노예들을 보  
낼 수는 없다. 그의  
하나님이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너희 집이 파리떼로 가득할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을 구별하마.

내 백성들 사이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 내가 온 땅의 하나님임을 모두가 알 것이다.”




아빠, 우리  
사제들은 왜 이 사람을  
못 막아요? 그들의 능력  
은 어찌된 건가요?

나는 종교에  
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 나는 내  
일밖에 몰라.



그가 말한대로  
입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파리떼가 없  
어요! 이걸 틀림없이 그  
들의 하나님인 한  
일입니다

모세를 찾  
아와라.



이제 가라. 가서  
너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이집트  
땅을 떠나서는 안된다.

저희는 사흘  
길을 가야 합  
니다.

가도 좋다고  
했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된다. 이제 네 하나님에  
게 이 더러운 파리떼를 없  
애달라고 해라.




온 이집트에  
파리가 한 마리도 남  
지 않았습시다. 이젠  
기적입니다.

입 닥쳐! 자네,  
그 수다쟁이들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군.

바로는 또 마음을 완  
고히 하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시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또 다른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이집트의 젓소, 황소, 양과 말, 낙타가 다 끔찍한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가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축은 다 죽었는데, 너희 가축은 건강하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모세의 말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들의 압박에서 건져내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 것은 모릅니다.



우리 사제들이  
우리 신에게 제물을 바치  
고 있어. 성스러운 우리  
황소신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멈출 거야.




이집트의  
신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능력  
도 없는 가?

바로에게 이미  
늦었다고 전해라. 우리의  
거룩한 황소신들은 모두 다 죽  
었어. 우리 신들이 이 히브리 하  
나님으로부터 자신조차 보호하  
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  
백성들이 분노할 거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9:6~7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시 위에 재를 뿌려 이집트 사람에게 종기가 생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 너와 네  
모든 가족에게 끔찍한  
종기가 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아, 안돼,  
더는 안돼!

마술사들을 불러라.  
있는 힘을 다 모으라고 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  
만 이 재앙을 멈추게 해.





제일 뛰어난 자  
를 오라고 하셨  
습니까?

너도냐? 이  
모세의 하나님  
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냐?



내 눈 앞에서 사라져라,  
이 능력 없는 사기꾼들아!  
너희가 교묘한 솜씨로 백성들을  
속이지만, 이제 다 사기꾼임을 알  
았다. 너희 신들은 어디  
있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다음 재앙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네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죽는 멸망이 올 것이니 이것을 보고 나같은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는 깨닫지 못하나 너를 바로로 세운 이가 바로 나이다. 나는 네가 마음을 완고히 먹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





네 완고함이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내 백성을 잔인하게 대한 이집트  
를 심판할 기회가 되는구나. 너희는 너희  
만의 이익을 내세우고 내 뜻을 행하지 않  
으니, 내일 이 시간에 온 땅에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얼음과 불을  
비같이 내리겠다.' "





“이제 가서 모두에게  
경고하라. 사람도, 가축도  
밖에 있으면 모두 죽을 것  
이니 사람과 남은 가축을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여호와와  
말씀대로  
되어라.




어떻게  
이런일이!  
불과 얼음이  
같이 내리  
다니!

위대한 세쓰  
신이여, 살려  
주십시오.

아아악!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요? 그  
의 하나님이 혼돈과 폭  
풍의 신인 세쓰 신보다  
더 위대한가요?

모세, 그  
사람은 이 세상  
에 하나님이 단  
한 분뿐이고 히  
브리 사람들이  
그의 자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히브리인까지도.  
모세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영이신  
그의 하나님은 바로를 설득해 히브  
리 백성을 보내 광야에 가서 하나님  
께 예배드리게 하려 하신다.



오, 혼돈과 폭풍의 신,  
우리의 위대한 세쓰 신이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심한 폭풍을 멈  
추어 주십시오. 분명 당신이 이 안  
보이는 모세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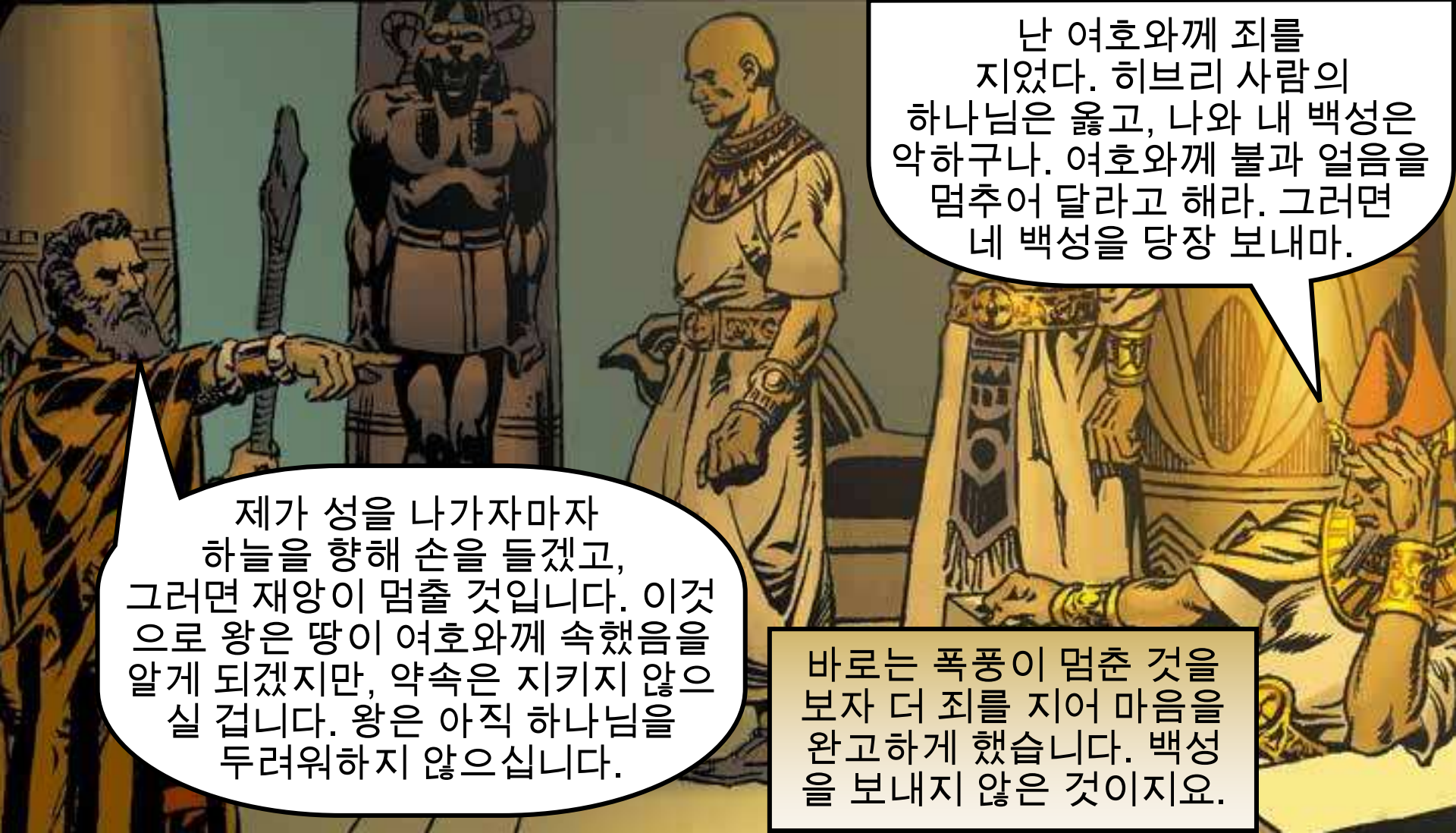


우리에겐 오지  
않는군! 이집트 사람에  
게만 오고 있어.

아빠, 무서워요! 불  
과 얼음이 우리에  
게도 내릴 건가요?

아니란다, 애야.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말  
에 순종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그들의 폭풍의 신 세  
쓰가 무력해 도울 수 없음  
을 보여주시는 거란다.

너무 끔  
찍해.



난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옳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구나. 여호와께 불과 얼음을 멈추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네 백성을 당장 보내마.

제가 성을 나가자마자 하늘을 향해 손을 들겠고, 그러면 재앙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으로 왕은 땅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알게 되겠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을 겁니다. 왕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폭풍이 멈춘 것을 보자 더 죄를 지어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또 재앙을 보내  
셨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폭풍에 살아남은 모든 풀  
을 먹어치운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집 안까지  
가득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9:25~35, 10:13~15

또또  
또또!

에구머니!

잡아버릴  
거야!



식물의 신 겹이시여,  
이 히브리 하나님은 우리 곡식을 어떻게 하는  
지 모르십니까?


오시리스여,  
당신의 강함을 오늘  
보여주소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 히브리 백성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메뚜기들  
을 떠나게 하시자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노예들을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온 이집트에 짙은 어두움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삼 일 동안 흐린 날 밤보다 더 짙은 어둠이 내렸지만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작  
너를 죽일수도 있  
었지만 그렇게 했  
다면 나의 신들이  
너의 신을 이길 능  
력이 없다는 증거  
였을 것이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지 않을 것  
이니 보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씀하시는군요. 다  
시는 마주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태양의 신 '라'  
이시여! 우리 기도를 들  
으소서. 삼 일 동안 숨어  
계시다니, 당신은 이 히  
브리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이게 마지막이오! 이 마지막 재앙 후에 바로는 우리가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기뻐할 겁니다. 오늘 밤 자정쯤 파괴하는 자가 온 이집트 땅을 다닐 것이고, 모든 가족의 장남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죄를 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장남은요? 그들도 죽나요?





하나님은 이집트  
인을 포함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어린 숫양이나 숫염소를  
취해 오늘 저녁 죽이고  
그 피를 문의 양 옆과  
위에 바르십시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오늘 밤 다니며 장남을 모두 죽일 때에  
문 밖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지  
나쳐 가고 그 장남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은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죽인 양을 먹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집트  
주인에게 가서 금, 은,  
보석 등 귀중품을 빌리십  
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마  
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들  
이 자원해서 풍성하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을 싸서  
내일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집트를 영원히 떠나는 거지요. 이  
날은 여러분에게 시간의 처음, 곧  
첫째 날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게  
우리의 마지막 양이  
예요. 우리 그냥 붉은  
페인트로 대신 칠하  
면 안돼요?

아들아, 하나님은  
반드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틀 양쪽에 바르라고 하셨다.  
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  
게 심판하시는지 네가 보지 않았  
느냐. 이 양은 너를 죽음에  
서 구하기 위함이다.

A comic book panel featuring a woman with dark, curly hair and a light-colored headscarf. She is wearing a brown, textured, sleeveless top. She is holding a small, light-colored animal, possibly a cat or a small dog, which is looking up at her. The background is a solid orange color. There are two speech bubbles: one on the left containing a question and one on the right containing an answer.

그러면 이 양이  
저를 위해 죽은  
건가요?


나를 위해서도 죽  
은 거다. 이 아버지  
도 장남이거든.



하나님이  
문에 묻은 피를 보  
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줄 알고  
그 집 안에 있는 사  
람을 아무도 죽이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단다.

엄마, 왜 아빠가  
우리 문을 피로  
칠하는 거야?


출애굽기 12:26~28, 35~36




왜 양을 죽여서 피  
를 문 양쪽에 바르  
지 않았나요?

흥, 그 미신을  
너는 믿냐? 어떻게 문  
양쪽에 피를 조금 발랐다고  
죽음을 막을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은 겁 먹지 않았다.  
겁나니, 조이킴?

당연히 아니죠.  
제가 겁쟁인가요,  
뭐? 종교는 약해빠  
진 사람들 거예요.



선한 신이라면 문에 피를  
조금 바르지 않았다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떡하구요?



아버지, 오늘 저녁은  
다른 때랑 왜 이렇  
게 다르지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를 보내어 그를 믿지 않는  
장남들을 모두 죽일 거란다.  
그렇지만 문에 피를 보면 그  
집은 지나쳐 가실 거야.

이 날이 우리에게 낄짜의  
시작이다. 매년 이 날이 오면 우리는 유  
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할 거야.



아, 아버지,  
비명소리 좀 들어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왔나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문 양쪽에 피를 발랐잖니.  
양고기를 먹고 있고.





우리 아들이  
죽었어! 어, 어떻게  
좀 해봐. 모세를  
불러줘!



아악!

안 돼!

안 돼! 우  
리아기  
는 안 돼!

미안하지만 너무 늦었네.  
경고를 받고도 믿기를 거부  
하지 않았는가.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걸세.

파괴자는 그 날 밤 성을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편 믿고서 문  
에 피를 바른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 아  
들이 죽  
었어요!

어서, 모세를 당  
장 데리고 와!



저 사람도 장남입니다!

으윽..


아니..?

출애굽기 12:29~31



바로는 또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  
구나. 가기 전에 나를  
축복해다오.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조상에게 약속하신대로 400년이 지나 히브리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금과 보석과 음식 등 그들이 원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습니다. 이 날은 히브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새 국가의 첫째 날이었지요.

600,000명의 남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https://goodandevilbook.com/>